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데이터센터·음식점 가공시설 등 설치 가능...부지 매입 절차도 속도



고흥군에 들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가 '스마트농업 지역'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말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으로 선정한 고흥만간척지 일원에 대해 최근 스마트 농업 지역으로 고시했다.
 따라서 이곳에는 데이터센터, 지역 농업인 음식점, 농수산물 가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년보육센터, 실종단지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농림지

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4개월 정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매입을 위한 소유권 이전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원활한 혁신밸리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비 31억원을 2019년 고흥군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임대법인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7월중 농식품부에 부지매각 처분 승인을 요청한 후 8월7일 농식품부로부터 매각 처분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주관으로 예정 부지 감정평가를 한 후 매각금액이 결정되면 9월까지 부지 소유권을 고흥군으로 이전될 수 있게 된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마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 자동차법인 출범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 그린카진 흥원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가 483억원(21%), 현대자동차가 437억원(19%), 광주은행 등 34개 기업이 나머지 자본금을 출연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 일자의 첫 모델이다.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신설 '청신호'...정인화 "내년 예산안 반영"

인원 35명 규모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내년 예산안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근무인원 35명 규모의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신설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인구 15만 6000여 명의 광양시는 총 불동량 기준 국내 1위인 광양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9개 산업단지가 소재해 국제행정 수요가 높은 곳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인 시 단위 중 세무서가 없는 유일한 곳으로 세무서 신설이 시급한 지역현안이었다.
 현재 광양 지역 납세자들과 기업인들은 세무민원을 위해 순천세무서까지 짧게는 약 8km에서 길게는 50km 가량을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신설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하고 2020 회계연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인화 의원은 "광양시민의 숙원사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서 온열질환자 24명 발생...“막바지 폭염 주의”

“응급상황시 즉시 119 신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0일 막바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1750명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중 10명은 목숨을 잃었다.
 광주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

았다. 하지만 관측된 폭염일 수는 지난해의 약 27% 수준인 12일(2018년 43일)인데 반해 발생 환자 수는 지난해(31명) 대비 80%인 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바지 휴가기간과 추석 별초작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까지는 폭염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 12-5시까지 오후 시간대는 도사로 이동하거나 농사일과 같은 야외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할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시원한 환경에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힘든 작업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체크해야 한다.
 황기서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추석 별초나 휴가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보랏빛 향기에 반하다” 담양 고서포도축제 23일 개막

3일간 증암천 생태공원 일원

담양 고서면은 오는 23일부터 3일간 증암천 생태공원 일원에서 '포도마인, 보랏빛 향기에 반하다'를 주제로 '제10회 고서포도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고서포도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고서면 기관·단체, 고서농협 등 각 기관과 사회단체가 후원해 '담양 고서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거래 홍보 및 관측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축제 전날 포도품평회를 시작으로 축제장 내에 관광객이 체험 할 수

있는 포도품종별 전시장, 포도와인담그기, 포도 족욕체험, 포도 빨리먹기대회, 포도상자 접기, 포도 깜짝세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객을 맞이한다.
 또한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포도막걸리 시음 및 부침개와 관광객 포도시식회, 야시장, 염색체험, 공예체험, 드론체험장도 함께 운영하며, 싱싱하고 맛있는 포도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함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3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박사진 등 국내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을 중심으로



24일 라디오스타, 품바 한마당,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노래자랑을 열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담양=백종영 기자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